

광양섬진강재첩,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K-푸드'로 도약

장어, 전어, 빻굴, 재첩까지 광양 4대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

광양시는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재첩을 비롯한 지역 수산물의 'K-푸드'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광양은 성불·동곡·어치·금천계곡의 4대 계곡으로 대표되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마로·불암·봉암·중흥산성의 4대 산성이 간직한 깊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예로부터 장어·전어·빻굴·재첩 등 수산물이 풍부한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남 장어구이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광양을 대표하는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가을 제철 전어는 고소한 품미로 지역 축제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았고, 빻굴은 섬진강의 명물로 매화축제 기간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철 별미로 각광받고 있다. 재첩은 국과 무침 등 다양한 요리로 사계절 미식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번 등재를 통해 섬진강 하류 일대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어업문화가 국제사회로부터 보전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공식 인정받음에 따라, 시는 이를 지역 어업유산의 세계적 위상 강화와 수산업 산업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첩을 비롯한 지역 수산물을 통합한 '광양 4대 수산물' 체계를 확립하고, 브랜드화 전략을 본격 추진해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는 재첩을 광양형 K-푸드로 육성하기 위해 '재첩과 스타' 등 특화 메뉴 개발과 음식 특화거리 안내판 설치,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관광·홍보·유통이 연계된 종합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산자원 보전·유통·가공 경쟁력 강화·체험·관광 연계·스몰호텔 브랜드화 4대 수산 전략 축을 중심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첩시범학교 운영, 거렁이 체험 프로그램, 기업 참여형 ESG 모델 개발, 손틀어업 전통 보전사업 등 시민과 함께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 섬진강 재첩은 지역민이 자연과 공존하며 지켜온 전통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첩뿐만 아니라 장어·전어·빻굴 등 광양의 수산물을 세계적인 K-푸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으며, 공식 등재 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흑두루미 73마리, 순천만 도래

'세계적 월동지 다시 찾았다' 자연과 인간 공존 사례로 주목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10월 22일 오후 3시에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Vulnerable)'으로 지정된 흑두루미 73마리가 순천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순천만 상공을 순회하던 흑두루미 9마리는 남해해 21일 일본 이즈미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보호종으로,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6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으며, 순천만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계심이 높던 흑두루미가 사람과의 신뢰를 쌓으며, 불과 20m 거리까지 가까이에서도 관찰될 만큼 인간과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 시는 2009년부터 62ha 규모의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해 안정

적인 서식지를 확보해왔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안골들 일대의 전밭대 49분을 철거하고 환경저해시설 없는 서식지 50ha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흑두루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행동패턴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되는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IUCN 가입 도시로서 순천시의 자연기반해법(NbS) 실천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흑두루미가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아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며 "순천만이 철새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공존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성군, 25일 '장성 영천 막걸리축제', '북이면 삼남대로 거리예술 한마당' 연다

지역의 역사·개성 담은 마을축제... 행사,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풍성

장성군이 주말인 25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축제를 선보인다. 먼저 장성읍에선 전통 막걸리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제2회 장성 영천 막걸리축제'는 막걸리 주조장이 밀집되어 있던 장성읍의 역사성을 되살린 축제로, 지난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장성영천막걸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장성읍이 주관한다. 올해는 옛 매일시장 골목에서 장성공원 폭포 방면까지 도로를 막고 개최된다. 막걸리 견본식, 남도 막걸리 대전 등 주요 행사와 초대가수 공연, '디제인', 마술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행사장 한편에선 △막걸리 시음 △'100% 당첨 톨렛' 등

돌리기 △'인생네컷' 촬영 △추억의 오락실 게임 △막걸리 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북이면 사거리전통시장 일원에선 '제2회 북이면 삼남대로 거리예술 한마당'이 펼쳐진다. 백양사역·사거리시장까지 이어지는 '풍년 거리행진'을 시작으로 창극, 시극,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댄스, 대금 연주 등이 관객과 만난다. 아울러 투호, 고무신 양궁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풍년놀이 한마당', '차맥 파티' 등 흥겨운 시간들이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새끼꼬기 등 전통문화 체험과 '포토존', 북이면 옛 사진전, 정찬욱 작가 작품전, 농특산물 판매 부스 등도 관심을 모은다. 주최는 삼남대로거리예술한마당추진위원회, 주



관은 북이면이 맡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역사와 매력을 간직한 지역 축제에 많은 관심과 방문 있으시기 바란다"며 "저녁녘에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도 찾아 주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 가을밤 감성 가득한 '쓰담쓰담 야시장 시즌2' 개장

페이백 이벤트와 벼룩시장(플리마켓) 운영으로 지역상권 활력 기대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가을 정취가 짙어지는 10월과 11월, 담양읍 다미담예술구와 담양시장 일원에서 오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쓰담쓰담 야시장 시즌2'를 연다. 이번 야시장은 지역 상인과 청년 상인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군민 참여형 행사로 꾸며진다. 이전 행사보다 전용 푸드마차를 늘려 수제 소시지, 해물파전, 닭강정 등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이고, 시간대별로 지역 가수 공연과 버스킹, 즉석 사연노래방 등 흥겨운 무대가 이어진다. 군은 야시장 기간 지역 소비 촉진과 상

권 활성화를 위해 다미담예술구와 담양시장 내 현장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일일정 금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 상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는 벼룩시장(플리마켓)에서는 수공예품, 생활소품, 디지털 등 개성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야시장 무대에서는 버스킹과 체험 행사가 열려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위한 야시장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나주시, 미혼청년 위한 '청년 네트워킹 데이' 참가자 모집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네트워킹 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1월 15일 나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청년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팀빌딩 프로그램, 청년 명사 특강, 원데이 향수 클래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모집 대상은 나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1980~1995년생 미혼 남녀 30명(남녀 각 15명)이다. 참가자는 농어업인, 청년 창업가, 직장인 등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형성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주간 온라인 신청 폼(포스터 내 QR코드)을 통해 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소득 활동 증빙서류(농어업경영체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다. 참가자 선정 결과는 11월 4일 문자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일상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확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고흥몰' 누적매출 100억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 개최

인기 상품 100원 특가, 100번째 주문 고객에게 3만 포인트 증정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직영하는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 '고흥몰'은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를 기념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소비자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농가와 함께 이룬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20여 개의 인기 상품을 단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일 행사'를 23일과 27일 양일간 진행한다. 또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기획전 기간 '100번째 주문 고객'에게는 '고흥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쇼핑은 물론, 특별한 행운과 혜택까

지 누릴 수 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100억 원 돌파의 성과를 소비자와 함께 나누는 자리이자, '고흥몰'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더 많은 분께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맞춤형 혜택과 차별화된 기획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몰'은 지난 2019년 9월 개설 이후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기획전과 마케팅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달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냐

기쁜 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범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고도 싶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있는 건데

이들

우어도 보는 것.

한드

잠시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좋은 거라면

좋은 거라면

좋은 거라면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